

제6과 위기의 시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이사야 7:1-25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 때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 주전8세기 중동지역의 국가들은 디글랏빌레셀3세에 의해 강국으로 부상한 앗수르의 침공을 받으며 무리하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이에 아람(수리아)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동맹을 맺고 앗수르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남유다도 동맹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게 되는데 남유다는 이를 거절한다. 그러자 주전 734년 경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왕 베가가 유다를 공격하게 된다.(1-2절)

①. 아하스는 아람-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놀라 스스로 디글랏빌레셀의 봉신이 될 것을 약속하며 앗수르의 도움을 요청한다. 역대하 28:16-21을 읽고 유다와 아하스가 어떻게 앗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는지 확인해보자.

②. 아하스는 앗수르의 도움을 요청한 후, 동맹군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고자 기혼샘물을 예루살렘성안까지 끌어오는 수로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이 때 하나님은 수로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신다.

다음 구절을 참고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전한 메시지를 확인해보자.

A. 르신과 베가의 유다공격이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4절-9절)

B. 하나님께 전쟁에 함께 하시는 증표를 구하고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10절-12절)

③.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 이 전쟁에 함께 하시는 징조를 보여줄테니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으나 그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13절에서 아하스를 향해 “왜 백성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을 괴롭게 하나?”고 질책한다.

그리고 이사야는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미래에 있을 두 가지 징조를 예언한다. 하나의 징조는 유다를 침공하는 두 왕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징조는 유다가 앗수르의 침공을 당하는 것이다.

다음 구절을 참고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앗수르를 의지한 아하스의 미래에 나타나게 될 두 가지 징조를 살펴보자.

1) 두 왕이 죽는 징조(14절-16절)

흔히 신자들은 14절을 마태복음1:23절에 인용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을 예언하는 구절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1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본절에 등장하는 ‘처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데 이는 결혼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른 여자를 가리킨다.

14절-15절은 처녀가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선악을 분별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르신과 베가가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한 때는 주전733년이고,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한 것이 722년이니까 약11년에서 12년의 기간을 말한다.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남유다를 공격하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했다. 그런데 이사야는 두 나라의 멸망이 앗수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의한 것이라고 예언한다.

2) 유다가 의지한 앗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 징조(17절)

④. 유다가 도움을 요청했던 앗수르로부터 재차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징조는 네 가지 그림언어로 묘사된다.

다음 표를 중심으로 네 그림 언어로 묘사되는 앓수르의 유다 침공 징조를 확인해보자.

	내용	강조
1	애굽과 앓수르를 상징하는 파리와 벌이 유다 땅에 날아와 재앙을 일으키는 그림(18절-19절)	
2	앓수르 왕의 명령에 따라 유다 백성들이 면도칼로 수염과 머리털을 미는 그림(20절)	
3	유다백성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유목민으로 전락하는 그림(21절-22절)	
4	유다의 포도원이 가시밭으로 변하는 그림(23절-25절)	

5. 이사야 7장에서 연합군의 공격을 받는 위기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과 세상을 의지하는 두 길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하스를 보며 우리의 영적 실존을 발견하게 된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세상을 의지하는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멸망이 자명한 세상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다.

왜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그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영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은 다르다. 육신의 눈은 사실(fact)을 근거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나 영의 눈은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한다. 즉 영의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해석한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다.

현재 나를 위협하는 위기의 상황은 어떤 것이며 이 상황에서 자신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 지 하나님께 물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자.